

[기획] >> 3면
20대 코로나 우울

[심층] >> 5면
대학가 길고양이 갈등

[학술] >> 9면
2030세대 주식 광풍

[인물] >> 12면
전우성 '프로덕션 계절' 대표를 만나다



학내 방역, 대면수업 걸림돌 되나

▶4면에서 계속

최근 잇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대학가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학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학내 방역 실태와 구성원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보자.

글·사진 김현익 기자 01hyunik@hufs.ac.kr

우리학교 학칙 개정 공포, 특별휴학 조항 신설해

이번 달 17일, 우리학교는 학칙을 개정했다. 신설된 특별휴학 조항은 이번 학기부터 적용 가능하다. 이는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의 장애학생 휴학기간 연장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학칙 제23조에 따르면 재학 중 가능한 휴학기간은 최대 3년이다. 휴학기간 경과 후 기간 내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일반제적 처리 대상이다. 단 예외규정을 통해 별도의 휴학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24조는 별도로 휴학기간 인정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한다. 기존엔 병역으로 인한 입대휴학만이 기재돼 있었으나 2014년 7월에 △육아△입신△출산을 보장하기 위한 모성보호휴학을 예외규정으로 인정했다. 이어 2018년엔 우리학교 학생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자 창업휴학을 신설한 바 있다.

기존 학칙엔 장애 및 질병의 사유로 휴학을 신청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입학 후 장애 및 질병이 발생해 3년 이상 학습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경우, 학칙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했다. 그러나 이번 학칙 개정으로 추가 휴학기간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안경호 글로벌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 팀장은 “장애나 중대한 질병을 겪는 학생도 학업 의지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 본인이 상태와 상황에 맞는 속도로 학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정 기자 100kimmijung@hufs.ac.kr

비대면 수업,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돼

이번 달 23일, 우리학교 비대면 수업 기간이 다음 달 4일에서 11일까지로 일주일 연장됐다. 다만 다음 달 6일부터 수강인원 20명 이하의 △이공계 실험·실습△체육실기△회화 및 말하기△PC 실습수업에 한해 대면 수업을 허용했다.

교내 시설 및 학생자치공간도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다음 달 5일부터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인문관 식당과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후생관 학생식당 운영을 재개한다. 이와 더불어 설캠 도서관 1층 로비와 글캠 백년관 1층 로비도 사용 가능해진다.

이번 달 24일, 기숙사 입사 및 기숙사비 환불에도 변동사항이 생겼다. 설캠 기숙사 국제학사·글로벌홀과 글캠 기숙사 흡스돔(HUFS Dorm)은 다음 달 11일까지 입사 신청을 취소하는 사생

에 한해 기숙사비를 환불한다. 국제학사와 글로벌홀 사생은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만 가능하다. 또한 다음 달 11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입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입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흡스돔은 다음 달 3일에서 4일까지의 입사 수속 일시를 다음 달 10일부터 11일로 미뤘다.

이와 함께 우리학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 방역조치를 공지했다. △각 건물 출입시 방역 통제△마스크 착용 필수△수강생 간 거리두기 강의실 배정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내부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연수 기자 100yeonsue@hufs.ac.kr



FILA

우리학교 송도캠퍼스 개발 현안 담론의 장 열려

이번 달 14일, 우리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주최의 '제1차 송도캠퍼스 관련 현안 논의 대토론회' (이하 대토론회)가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토론회는 △발제△토론△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송도캠퍼스 투자비용과 우리학교의 재정상황을 두고 개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갑론을박을 펼쳤다. 김학태 우리학교 재부·대외부 총장(이하 김 부총장)과 박정원 중언문 교수 겸 국제자유대학 추진위원장(이하 박 위원장)이 송도캠퍼스 개발 추진 찬성 측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박용구 응일지 교수(이하 박 교수)와 유태영 경영대학 교수(이하 유 교수)가 매각을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고, 이외에도 대면·비대면으로 130여 명의 우리학교 구성원이 참석했다.



▲우리학교 송도캠퍼스 조감도

교육사업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기대효과를 강조하며 송도캠퍼스 개발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기존 전공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학과를 신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의 박 교수는 "현재 우리학교는 스마트도서관 건립 등으로 인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40억 원 내외를 반환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학교의 상환액 한계점과 같은 수치다"며 △등록금

동결△적립금 부족△수익한계 도달 등을 근거로 우리학교는 재정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나아가 송도캠퍼스에 투자한 만큼 재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유 교수는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투자비용은 최소 3천억 원인데 연세대학교 3분의 1 규모의 부지를 소유한 우리학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3단계 개발에 최소한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해 4월, 우리학교는 송도캠퍼스에 대한

정식 인가를 받기 위해 교육부에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캠퍼스의 학생 수 대비 교지 확보율이 법정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반려됐다. 계획서에 표기된 이동 정원은 학부와 대학원 각각 1명과 30명으로 현재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교육부 내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대표로 참석한 김나현(서양어·프랑스어 15)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송도캠퍼스 개발 추진 과정에서 학생이 배제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송도캠퍼스 개발 기간 동안 기존 캠퍼스 재학생은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만큼의 효용이 송도캠퍼스에서 발생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박장원(자연·화학 17)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추진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개발을 위해선 미래만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행정 처리부터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은 학교 구성원에게 송도캠퍼스 개발에 대한 답으로 청사진을 마련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줄 것을 요청했다.

김미정 기자 100kimmijung@hufs.ac.kr

지난달 25일, 총장후보 선출 규정 개정안이 양 캠퍼스 총학생회 공식 SNS 계정에 발표됐다. 기존엔 총장후보 입후보자 등록을 위해 교수 10명에게 추천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총 20명 이상의 선거인 추천을 받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추천인 명단은 우리학교 교수 10명 이상과 학생·직원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거나 10년 이내에 연구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입후보를 할 수 없다. 입후보 서류엔 범죄경력 조회서도 새로 포함됐다.

기존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교수 44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추천위는 학생과 직원 대표를 각각 10명씩 추가해 △교

총장후보선거 학생 참여 잠정 확정돼

수 44명△직원 10명△학생 10명으로 구성했다. 이는 또다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공개토론회위원회로 나뉜다. 추천위 내부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교수 5명△직원 2명△학생 2명으로 구성된다. 나아가 투표 반영 비율은 △교수 90%△직원 5%△학생 5%다. 투표율은 과반 이상이 원칙이며 미달 시 중운위에서 투표 반영 비율을 결정한다.

해당 안에 대해 이번 달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

일 간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에서 '총장후보선출규정 개정안'에 대한 교수 투표'를 진행했다. 총 투표율은 70.24%였으며 이 중 찬성은 62.2%로 과반수를 넘겼다. 이로 인해 다음 해 예정돼 있는 제12대 총장후보선거에서 △교수△직원△학생 3주체가 공식적으로 직선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이 잠정 확정됐다. 온전한 직선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교수△직원△학생 3주체 중 직원과 학생 단위의 주인 단계만이 남아있다. 이에 교협 측은 "3주체가 참

여하는 민주적인 총장후보선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교수△직원△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장원(자연·화학 17)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은 "학생이 총장 선출에 대한 참정권을 얻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가오는 총장선거에 학우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권장했다. 김나현(서양어·프랑스어 15)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총장후보선거에 학생이 참정권이란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어 기쁘지만 낮은 투표 반영 비율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교내 구성원 3주체가 참여하게 될 총장후보선거가 우리학교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김연수 기자 100yeonsue@hufs.ac.kr

우리학교 모의국제연합(HIMUN), 제44차 모의유엔총회 개최해

이번 달 2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44차 우리학교 모의유엔총회(이하 총회)가 개최됐다. 해당 행사는 '신(新) 기후체제 하, 미래 산업을 위한 국제적 거버넌스 마련'이란 의제로 진행됐다. 총회는 새로운 기후체제에서 미래자원과 환경 보호 매개체로서 산림자원이 지닌 의의를 돌아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온라인 중계됐다. △미국△우리나라△중국△프랑스 등 9개 나라 대표 학생이 유엔의사규칙에 의거해 각 나라의 언어로 의제에 대해 발언했다. 발언 내용은 유엔 공식 언어인 △러시아어△스페인어△아랍어△영어△중국어△프랑스어를 사용해 진행됐으며 한국어로 동시통역됐다.

이번 행사 주최자인 조민령(상경·경제 16) 우리학교 모의국제연합(HIMUN) 사무총장은 "코로나19란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초반엔 어려움에 봉착했으나 총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돼 정말 기쁘다"며 "값진 결과를 남

았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 56명의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미국 대표로 참가한 이희원(영어·영문 19) 씨는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를 대표하는 데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고민할 수 있는 뜻깊고 값진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해 창설 62주년을 맞은 우리학교 모의국제연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생 외국어 학술단체다. 해당 총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모의유엔·외국어 학술행사로 출발했으며 범대학적 학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2016년 실시된 제40차 모의유엔총회부터 유엔공보국(UNDP)이 발표한 모의유엔 의사규칙인 'UN4MUN' 지침서를 도입해 실제 유엔회의와 흡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총회는 토론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국제 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연수 기자 100yeonsue@hufs.ac.kr

디지털 성폭력 논란, 우리학교 성평등센터 대응에 나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이하 에타)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사례에 대한 제보 및 신고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우리학교 에타 게시판엔 특정인을 지칭하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여러 게시물이 올라왔다. 더불어 비대면 수업에 사용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은 악용한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학교 미네르바교양대학 M 강의에선 수업 진행을 위해 공개된 학생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사이버스토킹을 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성평등위원회의 권고로 수업 담당 교수는 이클래스에 관련 공지를 게시했다.

이번 달 17일, 우리학교 양 캠퍼스 성평등센터는 에타에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고지문을 올렸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이는 처벌 대상이다.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선 행위자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으며, 피해가 발생했을 시 성범죄로 간주한다. 또한 이런 행위는 수위에 따라 학내사건처리 및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사건 신고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또한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된다.

학내 사건의 경우 우리학교 성평등센터에서 사건 처리를 담당한다. 현재 성평등센터는 교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폭력 사례를 수집중이다. 더불어 온·오프라인에서 당사자에 대한 발언 및 접근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조속히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영진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성평등센터 상담연구원은 문제 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평등센터에서 진행하는 폭력예방교육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정 기자 100kimmijung@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1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1학년도 전기 입시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0.09.28(월) ~ 10.08(목)	2020.11.09(월) ~ 11.20(금)
고사장 발표	10.14(수) 15:00	11.25(수) 15:00
면접전형	10.17(토) 10:00 예정	11.2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0.28(수) 14:00	12.09(수) 14:00
등록 예치금 납부	11.02(월) ~ 11.06(금)	12.14(월) ~ 12.18(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학과
- 다.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작성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 5) 학력조회증서 1부(원본)
-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 7) TOP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 2) TOP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 나. 최소 3학기료 조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국인),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0)

20대에 드리운 코로나 우울, 우리학교 재학생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덮친 지 어느덧 8개월이 흘렀다. 장기화된 감염병과의 사투는 우리에게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유발했다. '코로나 우울'로 대변되는 시대의 우울증은 우리 공

동체에 깊숙이 침투했다. 20대 우울증 환자가 급증해 이전 하나의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 우울이 무엇인지, 코로나 우울로부터 우리학교의 구성원은 괜찮은지 알아보자.

◆코로나 우울이란

코로나 우울은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일상에 생긴 변화로 인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의미한다. 이번 달 21일, 정부는 기존 '코로나 블루'라 불리던 코로나 우울을 질병코드로 신설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이번 달 23일 이용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하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약 80만 명이 우울증을 겪었다. 이번 해엔 코로나 우울의 영향이 더해져, 1분기에만 50만 명이 넘는 우울증 환자가 발생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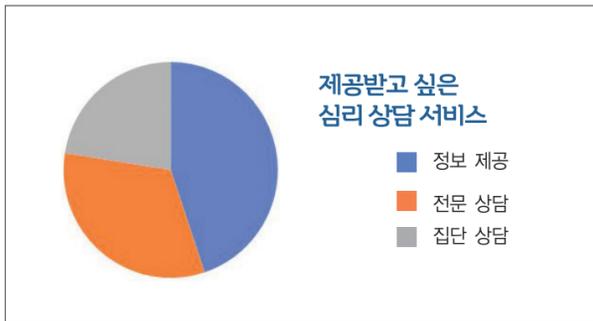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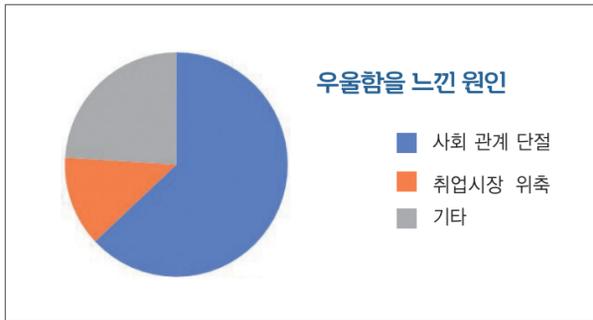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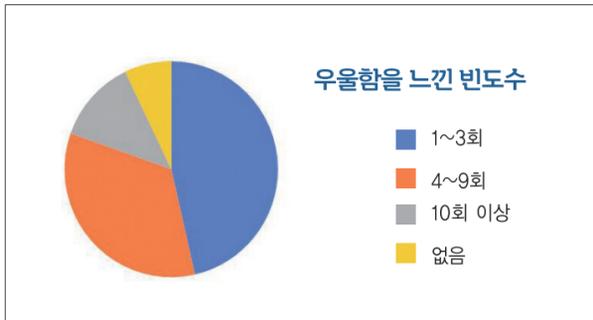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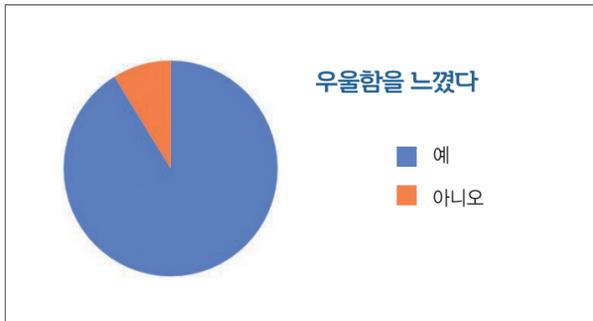
주목할 점은 20대 우울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사실이다. 이 의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해 20대 우울증 환자는 7만 4,058명으로 3·40대 우울증 환자 수보다 각각 17.7%, 8.9%가 높았다. 국내 연령 별 인구수가 20대 680만 명, 30대 700만 명, 40대 84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20대 우울증 환자 분포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우울증 환자의 증가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망자 수와 자해 시도자 수의 증가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 이 의원이 활용한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이번 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는 6,278명으로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코로나 우울의 지속이 자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자체의 자살 예방 사업이 필요하다"며 주의를 기하고 있다. 나아가 20대의 자해 발생 건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이번 달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취합한 '고의적 자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번 해 상반기에 20대가 자해로 병원 진료를 받은 건수는 213건으로 지난해 118건에 비해 80.5% 증가했다.

◆우리학교 재학생은?

외대학보는 이번 달 22일부터 24일까지 총 3일간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인스타그램'에서 '우리학교 재학생이 겪는 코로나 우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91%가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46%를 차지했다. 또한 일주일에 평균 4~9번을 느끼는 응답자와 10번 이상이라고 답한 설문 대상자 역시 각각 34%와 13%로, 우리학교 재학생 역시 코로나 우울 영향력 아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울과 불안감을 느꼈던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63%가 '사회적 관계 교류 제약 및 단절'을 꼽았다. 뒤이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취업 시장의 제약'이 13%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대인관계를 중시하고 취업에 민감한 20대가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충분한 사회 생활을 영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혜민(아시아·태국어 16)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2주간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해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돈을 벌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밖에서 자유롭게 놀 수도 없으니 답답함을 넘어 우울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감염 불확실성과 낮은 증상 가능성 △낮은 질의 비대면 수업 △일상의 급변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코로나19발 우울증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정신 건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응답자 중 74.5%는 '필요하다' 말했



다. 제공 방식에 대해선 응답자 41%가 '전반적인 정보를 받고 싶다'고 답했다. '전문 상담사와 심리 상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또래와 집단 상담'이 각각 답변의 30%와 20%를 차지했다. 이는 사람 간에 단절로 인해 파생된 심리적 우울인 만큼 대인관계를 통해 공감 및 치유를 받고 싶음을 의미한다. 김강현(경영·경영 16) 씨는 "몇 개월 동안 거의 집에만 있어 타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해본 게 손에 꼽는다"며 "단순한 소통만 다시 하게 돼도 정신적인 압박감이 해소될 것 같다"고 원활한 사회교류를 우울증 극복 방안으로 제시했다.

◆코로나 우울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은?

우리학교 양캠퍼스 학생상담센터는 재학생의 정신 및 심리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상담센터는 이번 해 3월부터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코로나 우울에 대한 글을 게시했다. 이는 △심리 건강 증진 방법 △우울증 자가 진단 △코로나19 스트레스 심리방역 등이 주를 이룬다. 나아가 재학생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의 상담 및 집단 상담을 운영해 학생 복지와 편의를 보장한다. 최근엔 인스타그램에 공식 계정을 운영해 학생의 접근 가능성을 증대했다. 이미화 서울캠퍼스 학생상담센터 상담교수(이하 이 교수)는 "이번 해는 등교 제한으로 인해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상담 신청 수요가 꾸준하다"고 말해 코로나 우울로 힘들어하는 학생이 많음을 시사했다. 이어 이 교수는 코로나19 심리방역의 방법으로 의연함을 손꼽았다. 코로나19 상황 자체를 바꾸지 못하므로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나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는 교내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번 달 4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가 위치한 동대문구 역시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 답십리 도서관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사서의 책 처방, 답십리 고민 상담소'는 주민이 코로나19로 겪는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사연에 맞는 책을 소개하는 맞춤형 소통 콘텐트다. 한편 이번 달 23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가 위치한 용인시는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한 '하반기 부모토크강좌'를 개설했다. 11월에 열리는 해당 행사는 코로나 우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가족 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다. 김보미(상경·국통 19) 씨는 "최근 코로나 우울과 관련해 많은 행사가 열려 좋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이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만큼 사회적인 유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우울이 20대를 중심으로 전 연령대로 확산하고 있는 요즘,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개인적 노력과 코로나 우울을 예방 및 치료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1학년도 전기 석사/박사/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1학년도 전기 입시전형 일정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특별전형	2020. 10. 5(월)~10. 12(월)	10.31(토) 10:00	11. 12(목) 14:00	11. 16(월)~11. 20(금)
일반전형	2020. 11. 9(월)~11. 13(금)	12. 5(토) 10:00	12. 17(목) 14:00	12. 21(월)~12. 28(월)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 2) 박사 : 국내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나. 일반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
-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모집학과
석사과정 50개 학과, 박사과정 45개 학과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4.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6. 전형방법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
나. 전문연구원 제도 운영
다.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학내 방역, 대면수업 걸림돌 되나

우리학교는 이번 해 2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설립하고 꾸준히 관련 현황과 조치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추가했다. 학교 측은 학교 건물 출입 통제와 발열 체크를 통해 학내 방역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학내 시설과 구성원들 개인의 방역에 대한 잡음도 일고있다. 이에 우리학교 △학내 구성원들의 개인 방역△학내 시설 방역 실태△학생자치 기구의 방역 준수 등을 확인하고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자.

◆ 우리학교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

우리학교 비대위는 행정지원처 산하 △국제입학관리팀△교무행정팀△보건실△인사혁신팀△학생지원팀으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주중마다 학교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을 최신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4명이며 모두 완치 후 퇴원했다. 또한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모두 캠퍼스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별 발열 체크를 시행한다. 주요 건물 출입구의 모든 곳을 전면 폐쇄하고 출입 시마다 발열을 체크할 수 있도록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했다. 각 건물 내부에선 주요 민원부서에 비말 가림막을 설치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도서관은 열람실만 개방해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잠정 중단했다. 또한 모니터링을 위한 콜센터와 신속대응센터를 운영해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 방문 학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자율격리점 △1일 2회 전화 연락을 시행하고 있다.

◆ 서울캠퍼스 학내 방역 관리와 허점

설캠의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건물별 발열 체크와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폐쇄되지 않은 건물은 학내 구성원이 신분증·학생증을 보여주고 들어갈 수 있고, 업무가 있는 외부인은 출입명부 작성 후 들어갈 수 있다. 특히 △그 외 외부인△음식 배달원△졸업생은 건물 내부 출입이 원칙적으로 통제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건물엔 오후 6시 이후 별도의 출입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후 6시가 넘는 시각엔 외부인도 학내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시설관리팀에서 담당하는 학내 소독은 공용 시설물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평일 아침 매일 학내 모든 건물의 △복도△엘리베이터△화장실 등의 소독을 진행한다. 추가적으로 공휴일에 학교시설물을 이용한 시험이 진행될 경우 주최 측의 주관으로 시험 전·후 전문소독업체의 소독이 이뤄지고 있다.

각 건물 출입구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공문이 부착돼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이 내부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대화 중에 무심코 마스크를 턱밑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다.

교내의 행사와 관련해 △단과대학 학생회△동아리연합회△총학생회 등은 비대면이 원칙이다. 그러나 논란이 된 학생 자치기구도 존재한다. 서울캠퍼스 R 뮤지컬동아리는 여름방학 중 진행된 공연에 대해 극장 내 방역을 비롯해 △관객 간 거리 두기△동아리 단원 포함 50명 입장 제한 △손 소독과 발열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연을 관람한 제보자는 “공연이 끝난 후 모든 배우가 무대에 올랐을 때 극장 내 인원이 50명을 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시작 시간에 조금 늦었는데, 일부는 발열 체크 없이 입장했다”고 전했다. 또한 설캠 국제학생회 ISO는 모든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방학 중 엔티(MT)를 다녀왔던 논란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불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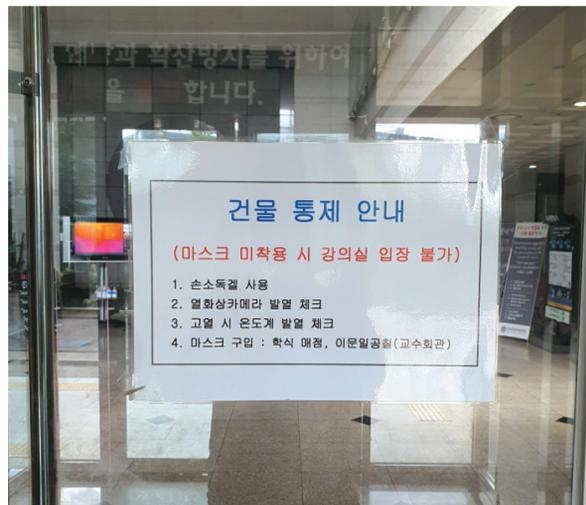
◆ 글로벌캠퍼스 학내 방역 관리와 허점

이번 달 4일, 글캠 인근 '스위첸 아파트'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했다. 캠퍼스의 외부인 출입은 등산객 등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인해 주말엔 관리 인원을 배치해 통제한다. 그러나 현재의 방역 체계론 교내를 출입하는 외부인을 완벽히 통제하기 힘들다.

글캠 건물 대부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협력업체를 통해 발열 체크 및 출입 통제를 실시한다. 학생들이 자주 출입하는 건물인 후생관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보건소에서 추가 인원을 편성해 출입을 통제하고, 백년관은 자정까지 별도의 출입 관리를 시행한다. 하지만 관리 인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건물도 존재했으며 통제 종료 시간이 상이했다. 창업보육센터와 왕산문화예술관 건물



▲글캠 동아리방의 찢어진 봉인지



▲설캠 건물 출입구 공문

입구에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어문학관 출입 통제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교수 및 학생이 건물 내·외부를 지날 때 출입명부를 잘 지키 않는다”고 말했다.

기숙사는 입구와 승강기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출입 시 마스크 사용을 공지하고 있다. 또한 건물별 소독 장비를 배치해 매일 오전 모든 건물의 소독을 실시한다. 대면 수업이 실시될 경우 점심시간에 추가적으로 소독을 1회 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숙사는 현재 24시간 개방된다. 하지만 기숙사 출입과 기숙사 식당 출입 시 별도의 발열 체크를 진행하지 않는다.

글캠의 △단과대학 학생회△동아리연합회△총학생회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행사를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캠 학내 구성원과 학생자치기구의 개인 방역도 철저히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글캠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Palette(이하 팔레트)'는 공식적인 동아리 활동과 동아리방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글캠 동아리방이 위치한 학생회관엔 봉인지를 통해 동아리방 사용을 통제했으나 많은 동아리방의 봉인지가 찢어져 있고 아예 종이를 뜯어둔 곳도 존재했다. 또한 어문학관 학과 세미나실 중 다수가 잠금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듯 학내 구성원의 시설물 사용 통제가 쉽지 않아 보였다.

이 외에도 열화상카메라의 기기적 결함도 존재했다. 열화상카메라는 체온이 37.5도가 넘는 대상이 감지됐을 때 경보음이 울려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글캠의 각 건물에서 실제 체온을 측정해본 결과 34~35도로 평균 이하의 낮은 체온이 감지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 더 나은 학교를 위해 학내 구성원이 가져야 할 자세

다른 대학의 코로나19 학내 감염사례는 1학기부터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최근 대면 수업을 진행한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기숙사에서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긴 뒤 추가 감염사례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학내 기숙사에서 감염 후 외부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한 사례가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김나현(서양어·프랑스어 15) 설캠 총학생회장은 학생자치기구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학교 외부에서 일어난 사항은 직접 접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현재 학내 방역에 대해 “학교 측이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 시행할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지속해서 요구했다”며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부분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캠퍼스 학생지원팀에 따르면 학내 코로나19 관련 위반사항 때문에 처벌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양 캠퍼스 총괄지원팀은 전체 대면 수업을 재개하면 강의실을 비롯한 공공시설 소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신현(경상·국제금융 17) 씨는 학내 방역의 허점에 대해 “학교와 학내 구성원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학교 측이 아직까지 대면수업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방역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단 입장을 표명했다. △교수△교직원△학생 등 모든 학내 구성원이 방역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더 안전한 학내 방역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길고양이를 향한 마음, 동물 보호와 민폐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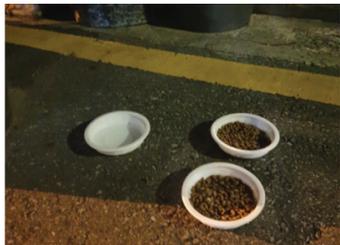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후문 근처엔 많은 길고양이와 그들의 사료·통조림 등이 쉽게 발견된다. 이로 인해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을 종종 접할 수 있다. 동물 복지를 위해 길고양이를 돌보아 한단 의견도 있

나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거나 소음을 발생시킨단 이유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학가의 길고양이 돌봄 문제를 둘러싼 갈등 상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길고양이 보호 사이의 갈등

최근 우리학교 설캠 후문 주변의 길고양이가 논란의 중심이다. ‘캣맘·대디’로 불리는 이들이 대학가 자취생 거주지 인근에 고양이 사료를 배식했기 때문이다. 동물을 보호해야 한단 의견과 소음이나 청결 문제를 지적하며 먹이를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외대학보는 이번 달 21일부터 23일까지 총 3일간 ‘인스타그램’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가 길고양이 돌봄 갈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학교 주변에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배식하는 모습이나 길고양이가 사료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77.4%였다. 이어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에 대해 52.8%의 학생이 찬성했다. 찬성 이유론 ‘동물 보호’가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대 이유론 50%의 학생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선택했고 ‘소음 문제’가 23.1%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고양이에 대한 공포심 △생태계 피해 △야생동물의 생사는 순리에 맡김 등의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주기적인 사료 공급이 배고픈 길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뜯는 행위를 방지해 거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차단하는 효과가 있던 입장도 존재했다.

이에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홍 교수)는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배식하는 행위와 소위 캣맘·대디에 대해 상반되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를 인도적인 행위로 보는 견해와 길고양이가 퇴치 방해로 보는 견해가 대립된다. 이들 간의 갈등은 폭력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설캠 후문 길고양이를 위해 놓아진 사료와 물

현재 후문 근처에 거주 중인 이준영(경영·경영 16) 씨는 “밤에 길고양이 울음소리나 영역 싸움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자주 잠에서 깬다”며 “길고양이 보호 활동은 이해 가지만 거주민 입장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동재(영어·영문 20) 씨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 적은 없지만 굶고 있는 길고양이를 보며 연민의 감정이 들었다”며 “아마 밥을 주는 사람도 이런 연민과 호감 때문일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 갈등 해결의 노력

우리학교 설캠 비공식 고양이 동아리 ‘낭만외대’는 △교내 급식소 운영 △교내 환경 미화 진행 △급식소 및 무분별한 배식 금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급식소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급식소를 사용하는 고양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손지원(사회·미디어 19) 낭만외대 회장은 “급식소를 이용하는 길고양이 중 중성화가 되지 않은 길고양이는 없

다”며 “만약 중성화가 되지 않은 길고양이가 급식소를 이용한 것이 발견되면 이동 경로 및 급식소 이용 시간을 조사해 TNR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낭만외대는 교내에 무분별하게 뿌려진 사료나 간식 쓰레기 등을 매일 청소한다. 급식소 외 사료 제공 금지 문구를 남기는 등 교내 환경 미화에 신경 쓰고 있다.



▲설캠 후문 길고양이

글로벌캠퍼스 길고양이 보호 동아리 ‘냥겨주임’은 인적이 드문 곳에 급식소를 설치해 사료와 물을 제공한다. 또한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해 용인시와 협업해 정기적으로 TNR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냥겨주임은 “사람들의 거주지에서

다음 해엔 고양이 보호 단체가 길고양이 구조·복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용인시청 동물보호과도 소음 피해와 영역 싸움 예방을 위해 TNR 사업을 진행 중이다. TNR 사업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고된 해당 위치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중성화 수술을 한 후 제자리 방사가 이뤄진다.

◆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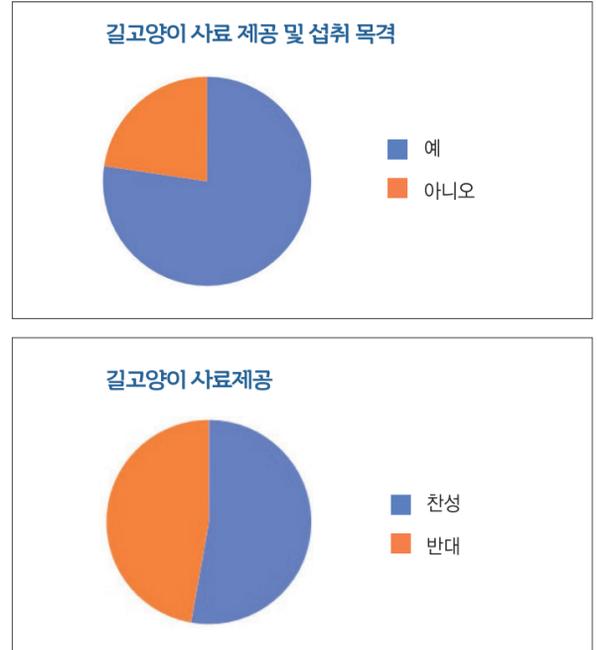
앞선 설문조사에서 해결방안으로 △보호시설 보내기 △지정 구역 배식 △TNR 사업 진행 등이 높은 비율로 언급됐다. 홍 교수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동물 보호법상 동물보호의 개념이지만 동물보호 유형에 속하는지에 대해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인 동물보호법 제3조 2호엔 “동물이 갈등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이는 동물을 △관리 △보호 △사육하는 사람의 의

무다. 길고양이는 보살피는 사람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동물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라”는 규정 역시 길고양이 보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거권은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는 길고양이에 대해 요구할 방법은 없다. 대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거주민이 평온하게 주거할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이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어 홍 교수는 “앞으로 길고양이 문제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길고양이에 대해 △공포 △애호 △혐오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과 입장이 반영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의 △규모 △개수 △처우 등을 확대·개선하고 전문가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동물 복지의 개선과 함께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TNR 사업: 포획(Trap), 중성화 수술(Neuter), 제자리 방사(Return)의 줄임말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성화 사업

김채현 기자 01cha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논대학원(야간) 2021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1학년도 전기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0.09.18(금) ~ 10.05(월)	2020.10.30(금) ~ 11.16(월)
고사장 발표	2020.10.14(수) 15:00	2020.11.25(수) 15:00
면접전형	2020.10.17(토) 10:00 예정	2020.11.2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0.10.30(금) 15:00	2020.12.11(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0.11.02(월) ~ 11.06(금)	2020.12.14(월) ~ 12.18(금)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공공감사 - 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감사)
-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 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
- 라. 문화콘텐츠학과(문화콘텐츠)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전화이플러이 www.jinhk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 됨)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
- 원우회 임원 장학금
-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 본 대학원 내 학과간 교차수강(졸업학점의 50% 까지)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정치행정논대학원)

TEL. 02-2173-2428, 2429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어서와 해외는 처음이지

새로운 세상, 우크라이나에서의 첫발을 기억하며

지난해 우리학교 해외연수 프로그램인 '우크라이나 르비브 이반 프랑코 썸머스쿨' (이하 썸머스쿨)에 참여했다. 썸머스쿨은 지난해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다. 내게 썸머스쿨은 '맛보기 스푼'과 비슷했다. 현지 연수 전 우크라이나를 느껴보고 싶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학교의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는 슬로건을 마음에 품었기에 졸업 전 해외 생활 체험에 대한 강박감이 있었다. 정보가 적은 우크라이나 생활의 불안함과 우리학교 학생으로서의 자질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 썸머스쿨 공지가 났다. 짧지만 풍부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분위기를 익히고 어학 실력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3주간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끝내고 주변 유럽 국가를 여행하면 여름방학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우크라이나로 향했다.

우크라이나 현지 생활은 시작부터 남달랐다.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간 직항편이 없어 같이 간 동기들과 함께 장장 11시간 동안 좁은 '플릭스(Flix) 버스'를 타고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 목적이지만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 르비브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부터 썸머스쿨이 시작됐다. 프로그램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진행됐다. 오전엔 주로 현지인 선생님이 참여 수업을 진행했고 오후엔 강의를 듣거나 르비브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역사 수업을 들었다. 오전 수업은 한 학기 동안 배운 우크라이나어 수업을 압축시켜 놓았던 생각이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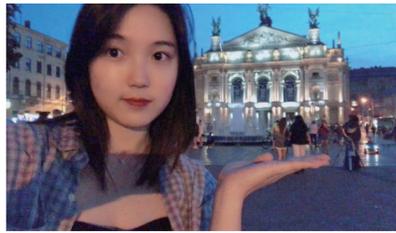
만큼 양이 많고 체계적이었다. 덕분에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력을 키울 수 있었다. 오전 수업이 지식 획득의 장이었다면 오후 수업은 지식 활용의 장이었다. 선생님들과 함께 시내를 돌아다니며 오전에



익힌 우크라이나어와 우크라이나 문화들을 몸소 체험했다.

르비브 근교 도시를 탐방하는 주말 프로그램도 있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나면 마트를 둘러보고 현지 맛집과 카페를 가기도 하며 도시의 분위기를 최대한 느꼈다. 길을 걸을 때 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말을 걸었지만 나쁜 의도로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어떤 할아버지 세 분이 우크라이나에 잘 왔으며 호의를 보여주셨던 신기한 일도 겪었다.

썸머스쿨 프로그램 덕분에 어학 실력과 학점은 물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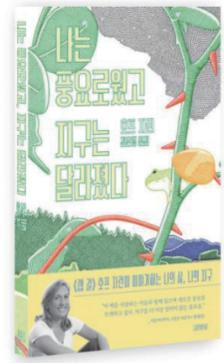
그 나라의 분위기와 정서를 짧은 시간 내에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맛보기 스푼 선택이 성공한 셈이다. 새로운 생활에 대한 도전이 달콤하던 것을 깨달았으며 해외 생활을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마주하게 됐다. 장기간 해외 체류가 막막한 학생들에게 방학을 통해 다녀오는 것을 추천한다. 학교 연계 프로그램이면 안정성과 학점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우리학교 학생 모두 새로운 자신과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맛보기 스푼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 사진 신유진 (동유럽 · 우크라이나 18)

미국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 지금의 소비와 지구의 풍요는 공존할 수 있는가 -



문명의 발달과 함께 사람들의 소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사람들은 쉽게 음식을 남기고 유행이 지난 옷을 버린다. 지구는 이런 소비 속도에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 해수면 상승은 잦은 태풍과 맨바닥이 드러난 남극 기지 등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을 안겨주고 있다.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의 저자 호프 자렌(Hope Jahren)은 이런 소비 습관과 지구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삶을 녹여내며 설명한다.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을 얘기하며 자신이 어릴 적 갖고 놀았던 얼음덩어리를 상기하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이젠 겨울이 와도 얼음덩어리를 볼 수 없고 아이들은 동네 빙판에서 스케이트를 즐기지 못한다고 말이다. 또한 자신이 유년기를 보냈던 옥수수밭과 도축장은 탄소 배출의 주원인인 농·축산업과 함께 언급된다. 저자의 경험과 엮어 지구의 변화를 이해하다 보면 환경 파괴 문제가 직접적인 우리의 문제임을 실감하게 된다.

또한 호프 자렌은 지구생물학자로서 지구의 변화를 다양한 데이터로 보여준다. 수치화된 통계자료의 등장은 막연하게 보이는 지구의 변화를 구체적인 것으로 느끼게 만든다. 미국에선 매시간 100만 마리의 동물이 식재료가 되기 위해 도살된다. 이때 식용 동물을 사육하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곡물이 필요하다. 10억 톤의 곡물이 동물의 먹이로 소비되지만 우리가 얻게 되는 건 1억 톤의 고기와 3억 톤의 분뇨다. 양식업 또한 마찬가지다. 양식 연어 1kg을 얻으려면 바다에 시는 작은 물고기 15kg이 필요하다. 현재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 3분의 17량은 분쇄돼 양식장 물고기의 먹이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수치는 우리의 풍요로운 먹거리가 거대한 자원 불균형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기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는 무한하지 않다. 호프 자렌은 "이 세상의 모든 결핍과 고통은 지구가 자원을 필요한 만큼 생산하지 못하는 무능이 아닌 우리가 자원을 나눠 쓰지 못하는 무능에서 발생한다"며 성찰을 강조한다. 현재 맞닥뜨린 △기후변화△소금없는 산불△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은 기후변화 해결에 있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현실을 직면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는 그 실천의 시작을 열어줄 것이다.

이현지 기자 100hyunzi@hufs.ac.kr

글로벌캠퍼스 설립 40주년 기념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

Global HUFSTory ③

어떤 경우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뚝뚝한 길을 택하라

- 글로벌캠퍼스 정심대도(正心大道)



▲정심대도석 변천



▲정심대도석 건립 공사(1986)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정문을 지나 중앙 도로로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양 갈림길 사이에 거대한 비석이 반긴다. 이 비석엔 '정심대도(正心大道)'란 글씨가 겹겹이 음각돼 있는데 구성원 대다수가 '정심대도석'이라 지칭한다.

글캠 설립 초기인 1986년엔 4차선 진입로와 명수당 연못을 조성해 캠퍼스의 △교육 시설 △기본 구조△조경 정비가 한창이었다. 정심대도석은 당해 개교기념일에 우리학교 설립자의 창학 이념을 담아 건립됐다. 해당 비석의 철학은 "어떤 경우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뚝뚝한 길을 택하라"는 뜻이다. 또한 정심대도 이념 근처엔 실용적 학문을 공부한 인재가 해외로 진출해 국력 신장에 기여하길 바랐던 실학 정신이 깔려 있다. 결국 실학 정신을 정심대도의 자세로 계승하고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해 국가 중흥을 이루겠다는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조화가 우리학교의 창학 이념이자 궁극적인 교육 목표다.

정심대도의 석(石)은 설립자가 충청북도 단양의 한 강에서 비싼 값을 주고 공수해 온 고급 돌

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며 돌에 새겨진 글씨는 우리나라 근현대 서예가의 대가인 여초 김응현 선생이 쓴 글씨다.

1997년 3월 17일에 발행된 '외대학보 685호'에 따르면 당시 왕산은 풍수학적으로 음기가 강한 곳이라 한 해에 한 번 홀로 남성이 명수당에 빠지는 사고를 겪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남성성을 상징하는 탑을 세웠다는 풍문이 전해지고 있다.

<正心大道>

천지의 맑은 정기가 서린 용인 왕산의 숲속에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상징하는 '정심대도'의 거탑을 세워,

우리의 높푸른 기상과 원대한 포부를 새로이 다짐 한다.

대학은 지혜의 밝은 빛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의 전당이요,

새 역사 창조에 이바지할 유능한 인재를 배양하는 도장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의 강역을 다시 보자.

뜻있는 젊은이의 가슴마다 분정만리 오대양 육대주를 보람찬 활동 무대로 주름잡는 기백

이 충일할 때 이 나라 이 겨레의 생존과 번영이 기억되지 않으랴.

이 웅지가 곧 우리 젊은이의 중심이요,

역사의 대도를 매진하는 웅대한 기상임을 이 거탑에 아로 새긴다.

저마다 광명정대한 소망과 민족혼을 품고,

국제 사회의 불붙는 경쟁의 대열에 뛰어들어 빛나는 민족적 궁지로서 이상과 영광을 추구하는 거목들이 이 학원에서 수없이 배출되기를 기원한다.

정심대도는 우리 마음의 등불이요, 행동의 지침이요, 생활의 규범이다.

민족의 발전을 영원하고 육영백년의 대계를 실현하고자 서기가 충만한 교정의 일각에 이 석탑을 세워,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영원한 지표와 교시로 삼는다.

*외대 역사관에서는 그 시절 추억이 담긴 서울캠퍼스와 미네르바 동산 관련 사진 기록물을 수집합니다. 동문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증 문의 - 외대 역사관 : 02-2173-3981)

-기록 및 사진 제공 : 역사관

익명 속 학생자치, 이젠 현실로 나설 때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은 대학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에타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며 대학생 간 소통 창구로 이용된다. 실제로 에타 내에서 활발한 의견 개진과 정보 공유가 이뤄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학내 자치활동

에 대한 재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요즘, 에타가 거의 유일한 여론 형성의 장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의 현주소와 학생자치활동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란

에타는 같은 학교 학생끼리 사용하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다. 학교 인증을 통과해 가입한 학생이 직접 게시판을 개설해 운영하는 체제로 전국 약 400개의 대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약 360만 대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에타에선 대학 생활에 필요한 △강의평가△교내 소식△시간표△학점 계산 등을 다양한 기능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대외활동을 찾아볼 수 있고, 교내 자치활동에 대한 정보도 접할 수 있다. 시간표를 짜기에도 편리하다. 수강신청 기간엔 재학생이 작성한 강의평가를 참고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중고 서적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진다. 이외에도 △다른 이용자와의 1:1 쪽지 기능△수업 일정 알림 기능△학사 공지와 일정 조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곳에선 단순히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익명이란 점을 이용해 평소 주위에 털어놓지 못한 얘기를 할 수 있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다. 김도원(중국·중외통 20) 씨는 "선배에게 직접 물어보기 곤란한 질문을 에타에서 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 익명 커뮤니티와 학생자치

에타 이용자는 익명으로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을 올리며 사람들과 소통한다. 그러나 익명성을 가면 삼아 혐오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된 글도 발견된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거짓 정보를 담은 글이 올라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로 우리학교 에타엔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캠퍼스 간 분란을 일으키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또한 재학생 간 '강의 매매'도 에타에서 이뤄지고 있다. 장터게시판에선 중고 물품 거래 사기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수업 필기와 시험 관련 정보를 사고파는 글△특정인을 저격하는 글△학내 사건·사고 글 등이 꾸준히 올라오며 각종 논란이 인

다. 이렇듯 에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자유롭고 활발하게 학생들의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번 해 우리학교 에타에선 △비대면 수업 전환 여부△융합인재대학 설립△특별장학금 편성 등 학내 중요 사안에 대한 많은 얘기가 게시됐다.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그러나 폐쇄적인 성격을 띠는 에타 특성상, 게시판 내에서 거론된 얘기가 변화의 키를 쥐고 있는 학교에 직접 전달되긴 힘들다.

학교에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각 대학마다 학생자치회가 있다. 우리학교 재학생은 △전체학생정기총회(이하 정기총회)△총장과의 대화△총학생회장단(이하 총학) 투표 등을 통해 학생자치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에서 각각 총장과의 대화가 진행됐다. 당시 참여 학생 수는 눈에 띄게 적었다. 각 캠퍼스 총학과 학내 언론 등의 인원을 제외하면 손에 꼽을 만큼 적은 학생이 참여했다. 특히나 참여율이 저조했던 글캠의 경우 수업이 모두 끝난 시간이 아니었고, 통학생의 경우 셔틀버스 시간으로 인해 참석의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도 적은 수였다. 물론 재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총학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학생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진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재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다른 행사도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다.

재학생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한 대표적 행사인 정기총회를 살펴보면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정기총회가 개회되기 위해서선 전체 재학생의 10% 이상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필요한 정족수는 지난해 기준 각각 설캠 826명, 글캠 678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7일 설캠 오바마홀에서 진행된 정기총회는 400여 명의 재학생이 참여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바 있다. 같은 날 글캠은 백련관 컨퍼런스 홀에서 정기총회를 실시했으며 700여 명의 학생이 모여 성사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참석 인원이 이탈해 모든 안건이 의결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학생의 주장과 요구는 학교 측에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다.

일 년간의 학생자치를 이끌어갈 총학이 선출되는 과정도 순탄치 않다. 지난해 설캠은 제52대 총학 '푸름'의 임기가 끝난 후 총학 후보자가 없어 비상대책 위원회가 그 자리를 잠시 대체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글캠 제41대 총학 선거에는 유권자 6,950명 중 3,156명이 참여해 총 투표율은 45.3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각 단과대나 다른 교내 자치단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실질적으로 입후보나 투표와 같은 직접적인 학생자치에 참여하는 인원은 갈수록 줄고 있다.

이처럼 우리학교 재학생의 실제 학생자치 참여율은 저조하다. 학교에 실질적 변화를 촉구하기엔 거리가 먼 익명 커뮤니티인 에타에서만 활발한 논의가 오가는 실상이다.

◆ 나아가야 할 방향

김나현(서양어·프랑스어 15) 설캠 총학생회장(이하 김 회장은) 에타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인 만큼 그곳에서 나온 총학에 대한 의견도 존중함을 전했다. 하지만 에타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와 소통을 하기엔 힘들음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에타 이외에도 총학에서 운영 중인 제보 창구가 많다"며 "△공식 채널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직접 들어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에게 이러한 창구의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했다. 박장원(자연·화학 17) 글캠 총학생회장(이하 박 회장은) "에타는 학교 웹메일만 있으면 이용 가능한 곳이라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외부인△교직원까지 있기에 이곳에 올라오는 것을 정회원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바라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학에선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받고 있다.

우리학교 설캠 학생지원처 관계자는 에타 내의 글

을 직접 보진 않지만, 설캠 총학과 회의 시 관련 의견을 전달받고 있다. 학생지원처는 설캠 총학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글캠 학생지원처 관계자는 "교내에 재학생이 요구 사항을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지원처에 직접 전화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민원사항에 글을 작성하는 것뿐이다"며 학생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음을 시사했다.

한 에타 이용자는 우리학교 입시에 관한 다른 이용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실제 우리학교 입학처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어 해당 면담을 정리해 에타 게시글로 올렸다. 익명의 재학생이 대표의 역할을 맡아 의견을 전달한 경우다. 또한 지난 8월 24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선 '한국외대 소통하러'란 문구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로 올랐다. 이는 에타 내 이용자에 의해 시작됐다. 학교 운영에 불만을 가진 재학생이 에타에서 나누는 의견을 학교 측에 전하고자 행동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경영·경영 16) 씨는 "에타에서만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닌 에타 내의 의견이 외부로 전달되는 사례가 더 많아졌음 좋겠다"고 전했다. 전혜수(사회·미디어 19) 씨는 실제 학생자치보다 에타에서 활동이 더 활발한 이유로 △익명성 정보장△물리적 시간·비용 절감△편리성 등을 들었다.

학교 운영에 재학생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선, 익명 커뮤니티에서의 역동적인 참여가 학생자치 현장으로 이어져야 할 때다.

김하늘 기자 01haneul@hufs.ac.kr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1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모집

1. 2021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0.09.21(월) ~ 10.05(월)	2020.11.02(월) ~ 11.16(월)
고사장 발표	2020.10.14(수) 15:00	2020.11.25(수) 15:00
면접전형	2020.10.17(토) 10:00 예정	2020.11.2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0.10.29(목) 15:00	2020.12.10(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0.11.02(월) ~ 11.06(금)	2020.12.14(월) ~ 12.18(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학과별 약간 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학과별 약간 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 (매학기 지급)
 라. 학점인정 혜택 (한국외대 TESOL 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 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 자격증 취득자)
 마. TESOL 연구과정 (자격증 과정) 수료자 우대
 바. 복수학위프로그램 (템플대학교), 3+1 프로그램 (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 프로그램 (샌디에고, 하와이)
 아. 추가학점 이수트랙스널 (논문·출판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교학과

TEL: 02-2173-3521~2FAX: 02-2173-3558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무면,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확인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잇따른 이상기후, 지구가 올리는 적신호

이번 해 여름 우리나라는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았다. 50일 이상 이어진 역대 최장기 장마 기간을 기록했으며, 3개의 태풍이 연달아 상륙했다. 이상기후는 세계적인 문제다. 러시아에선 진딧물 때가 도심 전체를 집어삼키고 미국에선 산불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등 해외 역시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이상 현상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다. 여러 환경단체는 기후변화가 불러올 '기후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와 기후 위기란 무엇인지 △기후 위기에 대한 국가의 대응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알아보자.

◆기후변화와 기후 위기

기후변화란 지구의 평균 온도가 변하는 현상이다. 이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적 요인은 대기가 △열음△육지△해양 등과 상호작용해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기후변화 문제는 인위적 요인에서 발생한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계속된 석탄 화력 발전과 무분별한 탄소 배출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2014년 유엔 산하 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하 IPCC)은 공식 보고서를 통해 '20세기 중반 이후 기후변화를 일으킨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 활동일 가능성이 95% 이상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났다. 이번 해 7월, 기상청과 환경부가 공동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을 보면 우리나라의 평균 지표 온도는 19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1.8℃ 상승했다. 지구 평균 지표 온도가 1880년부터 2012년까지 0.85℃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속도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여러 연쇄적인 위기 상황을 가져온 단점에서 기후 위기가 불리기도 한다. 이번 해 여름 우리나라의 이상기후 역시 연쇄작용 중 하나다. 최장기 장마의 원인엔 북극골고온 현상이 지목되고 있다.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러시아 극동부의 기온이 평년보다 20℃ 높은 38℃를 기록했다. 이런 기온 상승은 북극권에 고기압을 장시간 머무르게 했고 이에 우리나라로 극지방의 찬 공기가 내려왔다. 그러자 예년이면 장마전선을 밀고 올라갈 북태평양고기압이 찬 공기에 막혀 북상하지 못하고 한반도에 정체했다. 즉 북태평양고기압의 따뜻한 공기와 극지방의 찬 공기가 만나 장마가 이어진 것이다. 잇따른 태풍 역시 지구의 온도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면 열적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해 해수면 스스로 태풍을 발생시킨 것이다. 미국의 대형 산불과 러시아의 진딧물 때도 지구의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지역의 기온 변화가 이전 주기와 달라지며 생긴 현상이다.

◆각 국가의 대응은

지난달 16일, 유럽연합(이하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소하자고 제안했다. 기존 목표가 40% 감축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제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협약이 모두 결과를 내지 못했던 것을 미루어보아 이번 제안 역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 채택된 '기후변화협약(FCCC)'의 구체적 이행 방안인 '교토의정서 협약'에선 △미국△오스트레일리아△일본 등 37개국이 모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당시 평균보다 5.2%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2001년 3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이 협약에서 탈퇴했다. 또한 EU와 러시아의 경우 협약 서명 이후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었다. 서명은 했지만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세우지 않았던 △브라질△일본△중국 등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했다. 이후 2015년,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의 온도 상승을 2℃ 내로 강력히 제한하기 위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그러나 157개국이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상승했고 2016년은 역사상 가장 더운 해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여러 노력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참여 외에도 기후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해 7월,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 사회와 저탄소·친환경 경제기반을 지향하는 '그린 뉴딜'의 구체적 정책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온실가스 1,229만 톤 감축△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



▲계속된 장마로 물에 잠긴 도로 모습 (출처: 연합뉴스)

△태양광·풍력 발전용량 증가 등을 계획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80곳은 2050년까지 지역의 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와 화학기업 LG화학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성장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린 뉴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크다. 이지만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이하 이 집행위원장)은 정책의 명확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어떤 사업을 통해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와 같은 데이터 투명성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그린 뉴딜을 발표한 한 달 뒤인 6월, 한국전력은 인도네시아에 석탄발전소인 '자와 9·10호기'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열대우림행동네트워크스마트마켓포시스스350.org 등 9개 국제환경단체는 미국 신문사 '워싱턴포스트'에 우

리나라 정책 비판 광고를 신기도 했다. 실제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공적자금을 석탄 화력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는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탄소 배출량 0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론 불충분할 정도로 지구온난화 진행 속도가 심각하다고 얘기한다. 김백민 극지연구소 북극해빙예측사업단 책임연구원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땅에 묻어 탄소 배출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선 국가나 기업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

제프리 오웬(Jeffrey Owen) 우리학교 환경학과 교수(이하 오웬 교수)는 "우린 개인적인 소규모 수준과 대규모의 국내외적 수준 모두에서 행동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정책 발의 건의△대중교통 이용△비행기 이용 자제△채식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특히 채식은 탄소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IPCC에서 발표한 '2018년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선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 공장식 축산에서 생산된 육류는 그 과정에서 전 세계 모든 교통수단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만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자동차가 1.6km를 달리며 뿜어내는 것과 동일한 온실가스량을 감축할 수 있다. 또한 오웬 교수는 교내 버스를 천연가스 차량이나 전기차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제 기후 위기는 전 세계에 비상등을 울리는 심각한 주제가 됐다. 지금부터라도 일상 생활과 함께 개인의 실천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해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로 인해 일회용 마스크, 플라스틱 등 일상의 쓰레기가 늘어가고 있다. 기후 위기를 심화하는 요소들이 많아지는 지금, 각자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이현지 기자 100hyunzi@hufs.ac.kr

저작권 단순한 권리가 아닙니다. 창작자의 생존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사례를 통해 저작권을 바로 알리기 위한 저작권 퀴즈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당첨자 50명에게 문화상품권(1만원)을 증정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퀴즈 이벤트

- 기 간: 2020. 6월 ~ 12월 (주1회)
- 문 제: 만화가 김저작씨는 자신이 유료로 연재중인 웹툰의 불법복제물이 포털사이트의 카페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 중 김저작씨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불법복제물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① 게시판이 소속된 포털의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불법복제물의 게재 중단을 요구한다.
- ② 한국저작권보호원의 COPY112에 신고하여 삭제, 불법복제물 유포자의 계정 정지 등을 할수 있도록 한다.
- ③ 경찰에 신고하여 유포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모두 다



※ 퀴즈 응모·당첨자 발표:매주 월~목요일 보호원 누리집 (<https://www.kcopa.or.kr/>) 접속해 응모, 당첨자는 금요일 발표

2030세대에 불어닥친 주식 광풍

이번 해 3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젊은 투자자들이 주식투자에 대거 뛰어들었다. 국내 대형 증권사인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해 1월부터 5월까지 신설된 계좌의 69.3%가 2030세대의 소유다. 다른 증권사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

올로(You Only Live Once)를 외치던 이들이 지금은 국내의 주식시장에 눈길을 돌린 것이다. 임태훈 우리학교 LT학부 교수와 주식시장 내 2030투자자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임태훈 우리학교 LT학부 교수

Q1. 이번 해 들어 국내외 주식시장에 몰린 개인투자자 자금이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량의 '유동성'이 풀리게 됐죠. 즉 사람들이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는 각 자산이 지닌 내적 가치의 상승을 유발했어요.
경제위기를 우려한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이자율을 낮게 유지했고 대출 부담이 적어진 개인으로 인해 시중에 현금이 많이 풀리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와 중앙은행은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 위험자산의 '하방위험'을 완화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사람들이 위험자산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Q2.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번 해 1분기 2030세대의 주식 계좌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원인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구조 개편 및 시대의 변화를 기대한 젊은 층의 과감한 투자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젊은 투자자의 미국 주식투자도 눈에 띄게 증가했죠. 이들이 보유한 투자종목은 전기차, 소프트웨어 등 기술 관련 주식의 비중이 높아요.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을 주도한 산업도 △바이오△의료△IT 산업인 것을 보면 젊은 투자자의 과감한 투자가 해당 산업의 주가 상승에 일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한편 2030투자자가 현재 전체 투자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2030투자자 비중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새로운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따라서 이들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3. 이번 해 실시한 한국경제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존 주식시장의 주류였던 4060투자자의 절반 이상은 안정추구형 투자를, 2030투자자는 위험감수형 투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령대에 따라 투자성향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생애주기를 보면 50대 이상은 미래 수입의 감소를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 보수적인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기존 투자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복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2030투자자는 앞으로 경제활동을 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과감한 결정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젊은 투자자는 경험이 부족해 여러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이

들은 주식의 근본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신에 빠져 무모한 결정을 하기도 하죠.

Q3-1. 이번 해 3월에서 8월까지 NH투자증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애플△테슬라와 같은 해외 주요 기술주를 순매수한 사람의 연령대를 보면 2030투자자가 60% 이상 차지합니다. 이들이 해외 투자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성세대에 비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특성과, 앞서 언급한 이들의 투자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이후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는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예로 지난해 신한금융투자자의 '연령별 해외주식 투자자 현황'을 보면 2030투자자의 비중이 60% 이상이었죠. 다만 아직까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는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최근 해외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개선된 상황에서 2030투자자가 변화에 맞춰 자신이 익숙하다고 생각한 산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Q4. 최근 빛을 내 투자하는 2030투자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나요?

빛을 내 투자를 하면 투자수익률의 변동 폭이 커집니다. 기존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이처럼 비슷한 처지에 놓인 투자자가 많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자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의 하락폭이 커지고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처럼 대출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대출이 늘어나는 추이를 주시합니다. 대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그 규모가 크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죠. 예를 들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점검하거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해요.

Q5. 금융시장 안팎에선 유동성 확대에 따른 주식시장 고평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거품이 붕괴된다면 공격적 투자성향을 가진 2030투자자에게 닥칠 위험은 어떤 것이 있나요?

거품이 붕괴된다면 최근 주가지수 상승을 이끈 종목들의 가격이 대폭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큰 폭의 가격상승이 일어난 IT 및 바이오

종목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2030투자자는 큰 손실을 유의해야 해요. 이는 2000년도 '닷컴버블'이 붕괴됐을 때도 발생했던 사건이죠. 그 당시엔 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라 기대가 만연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많은 IT기업이 고평가됐었습니다. 물론 기대에 부응해 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IT산업이 주식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지만 당시 고평가된 상당수 기업 중 일부만 현재까지 살아남았어요.

Q6. 이번 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후 주식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나요?

현재는 대주주 이외엔 국내 주식을 사고팔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후 2023년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투자에 대해선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현재 단기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감소하게 되므로 투자자들은 과거보다 장기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Q7. 2030세대의 주식시장 대거 유입이 앞으로의 증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하나요? 또 이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2030세대는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의 양이 많지 않고 신용의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증권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030세대가 주로 투자하는 종목에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는 다양한 행태적 편에 따른 비합리적인 투자행태를 보입니다. 2030투자자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비합리적인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진 않은지 더 면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투자 결정이 과신에 의한 것이 아닌지,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근본적 가치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것은 아닌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며 투자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방위험: 경기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
**스트레스 테스트: 은행이나 증권사를 포함한 회사 및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서 특정 조건을 적용해 이에 따른 반응을 수치적 결과로 나타내는 실험·측정검사 방법

김민주 기자 01minju@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0. 9. 21(월) ~ 09.25(금)	2020.11. 2(월) ~ 11.16(금)
면접전형	2020.10.17.(토) 10:00	2020.11.28.(토) 10:00
합격자 발표	2020.10.30.(금) 16:00 예정	2020.12.11.(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0.11.02(월) ~ 6(금) 예정	2020.12.14(월) ~ 18(금) 예정

◆ 모집 전공

모집과명	모집 전공		
교육학 석사 (야간)	•국어교육	•영어교육	•유아교육
	•스페인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상담심리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역신미래교육	•다문화교육	•어린이영어교육
	•독서논술교육	•창의융합인재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접수방법

- STEP1-인터넷 원서 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라이Uwayapply.com))
- STEP2-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입 학 문 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문의 02-2173-2419)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일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e.hufs.ac.kr) 입학모집포장 및 입학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낭만을
꿈꾸며

내 정체성은 이중적이라 스스로 모순에 빠질 때가 다반사다. 겁이 많지만 좋아하는 공포 영화를 보고 난 후 후유증에 시달려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 실행력이 좋지 않지만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계획을 세웠다가 하나도 이행하지 못해 자괴감에 빠지곤 했다. 사람을 좋아하지만 낯을 많이 가려 쉽게 다가갈 수 없었다. 새로운 관계에 용기를 내고자 다짐해도 우유부단한 천성은 결심을 꺾어버렸다. 결국 말 한번 제대로 걸지 못하고 끝난 대인관계는 일일이 기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러나 난 항상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고 싶다. 하루아침에 소위 '인싸'가 될 순 없지만 매일 조금씩 남에게 살갑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마음 맞는 사람과 어울리며 교류하는 게 내 낭만이기 때문이다.

외대학보에서 처음 느낀 건 멋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었다. 학보의 완성을 위해 밤새며 기사 작성 및 수정을 끊임없이 하는 열정과 의연함에 압도 당했다. 각자의 확고한 가치관을 뽐내는 기자의 모습은 팔색조와 같아 친해지고 싶은 1순위가 됐다. 이 모습에서 무한한 신기함과 교류하고 싶단 욕구를 느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친해지는 과정은 매우 어려웠다. 내 특유의 소심함과 더불어 학보의 목적은 친목 도모가 아닌 학보 작성이란 공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체감했던 학보의 어려움과 궤를 같이하는데, 기사를 쓰고 수정하는 힘겨움보다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자괴감에 빠지곤 했다. 이대로 학보 활동이 끝나는 날까지 제대로 된 교류를 못 할까 걱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걱정의 7할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서 기인한다. 인디언의 격언처럼 기우에 불과했다. 1년 동안 학보에서 동고동락하다 보니 멀게만 느껴지던 동료와의 심리적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다. 학보 동료들과 업무에 관한 얘기가 아닌 시시콜콜한 잡담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을 때 정말 기뻐다. 남들이 보기엔 사소한 친구끼리의 행위였지만 내겐 낭만의 실현이었다. 최초로 학보에 내 이름이 적힌 기사가 실렸을 때보다, 생각 외로 글이 잘 써져 마감을 일찍 끝냈을 때보다 더 짜릿한 성취감을 느꼈다.

기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소박하다. 기자 특성상 다양한 사람과 만나며 교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낭만 실현과 동시에 경제활동도 가능하니 다른 선택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학보에 들어오는 이들 대다수가 언론에 뜻이 있어 들어온 경우가 많다. 나 역시 언론 생활을 미리 체험하고자 학보에 들어왔다. 단순히 경험과 스펙을 쌓았던 것보다 마음 맞는 사람을 얻었다 것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다. 먼 훗날 내 포트폴리오엔 '학보사 활동을 했다'란 감정 없는 문장 한 줄로 기록되었지만 머릿속엔 언제나 생생한 추억으로 보존될 것이다. 과정은 순탄하지 않지만 결국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한 학보에 감사할 수 있다. 난 오늘도 기자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며 낭만을 꿈꾼다.



이상우 기자

[책 '쇼코의 미소'를 읽고]
헤어짐의 서로 다른 정서

일본인 '쇼코'는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우리나라 학생 '소유'의 고등학교에 견학 온다. 소유의 할아버지 일본어로, 소유는 영어로 쇼코와 소통하며 일주일을 지낸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쇼코는 주기적으로 소유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 편지도 어느덧 끊기고 대학생이 된 소유는 쇼코의 집을 직접 찾아가다. 일본에 있던 쇼코는 매우 불안한 상태였고 소유는 다시 한국에 돌아와 쇼코를 만나지 못했다고 가족에게 말한다. 그 후 소유는 대학을 졸업해 단편영화를 만들고 영화감독을 꿈꾸지만 지속된 영화제 낙방에 꿈을 포기하려 한다. 하지만 얼마 후 할아버지가 찾아와 쇼코의 편지를 전하며 "서울에 가 공부도 하고 영화감독도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거라"란 말을 남긴다. 몇 달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단 소식을 들은 쇼코는 할아버지와 주고 받은 편지를 갖고 우리나라에 와 소유에게 건넸다. 그 편지 속엔 할아버지가 화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 10살 때부터 40년 동안 가게를 운영했던 사실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에 쇼코는 다시 웃음을 지어보이며 언젠가 또 오겠단 말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간다.

소설 속 인물은 각자 가진 어려움이 있다. 작은 공간 속에 갇혀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른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관계란 것을 깨닫고 점차 그 공간을 확장하기 시작한다. 쇼코는 소유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며 억눌려 있던 감정을 해소한다. 소유의 할아버지는 쇼코에게 편지를 쓰며 본인이 가졌던 어린 시절 꿈을 회상한다.

그들은 타인에게서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간다. 국적이 다른 50대 할아버지와 소녀 그리고 10대 소녀의 펜팔은 흔치 않은 장면이다. 하지만 쇼코는 가까운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불안감과 본인의 아픔을 편지에 담아 전달하고 본인에게서 비워낸다. 소유가 어린 시절 봤던 쇼코는 성숙한 미소를 가진 강한 소녀였다. 하지만 대학생이 된 후 다시 만난 쇼코의 약한 모습에서 자신과 똑같은 타인의 불안전환을 마주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내가 바라보고 싶었던 모습만 봤다는 것을 깨닫는다.

책 속엔 인물 간의 이별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 주인공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헤어짐을 맞이한다. 책을 읽으며 내가 여태껏 겪었던 모든 헤어짐이 각기 다른 감정을 선사했음을 깨달았다.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모든 헤어짐은 슬프다. 하지만 그 슬픈 정서는 단지 '슬프다'란 단어로 함축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포함된다. 내게도 슬한 이별의 경험이 있었다. △고향을 떠날 때 겪는 친구와의 이별△사랑한 연인과의 이별△오래 알고 지낸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 등 각종 이별의 정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며 내 공간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주인공을 응원하는 말을 들으며 공감이 많이 됐다. 어린 시절 돈을 벌기 위해 가게를 지켜야 했던 할아버지의 선택과 그로 인해 꿈을 펼치는 손녀를 보며 대리만족하는 할아버지는 여러 독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김현익 기자 01hyunik@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은교'를 보고]
넓은 생각은 썩는다

2012년 개봉한 정지우 감독의 영화 '은교'는 박범신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영화는 △서지우△은교△이적요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적요는 문학계 거장으로 인정받는 작가다. 서지우는 재능은 없지만 문학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을 가진 그의 제자이며 은교는 우연히 그들의 집으로 찾아온 고등학생이다. 이야기는 세 명이 공존하는 집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노인 이적요와 달리 은교는 아주 젊다. 영화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넓은 이적요가 젊은 은교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녹여낸다. 늘어버려 물리적인 생동력을 잃은 이적요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슬퍼한다. 한편 가정에서 소외받은 은교는 감춰지지 않는 슬픔을 갖고 있다. 영화는 늙은이와 젊은이 사이의 괴리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과정에서 해소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주제 때문에 영화 속엔 이적요의 늙음과 은교의 젊음을 대비한 장면이 많이 나타난다. 반대로 이적요의 내적 충만함과 은교의 공허함을 대비하는 모습이 담겨있기도 하다.

이 작품에선 빛의 대비가 가장 두드러진다. 영화 전반에서 은교는 환하게 빛나는 모습인 반면 이적요는 보다 어두운 모습으로 묘사된다. 즉 빛을 젊음의 상징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는 은교의 등장 장면에서 두드러진다. 이적요와 서지우는

집으로 돌아오다 마당에서 잠든 은교와 처음 마주하게 된다. 이 때 카메라는 이적요의 시선을 따라 은교를 비춘다. 이 장면은 은교의 △목덜미△허벅지△종아리 등을 보여주며 이적요의 성적 욕망과 젊음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다. 영화는 이적요를 비추는 것보다 은교를 비추는 것에서 훨씬 밝은 노출값을 사용하며 특수효과로 은교를 빛나게 만든다. 이를 통해 이적요가 은교와 마주하며 얻은 감명을 보다 직관적이고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영화는 남성중심적인 서사를 벗어나지 못했던 비판을 받는다.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 간의 사랑이란 주제는 이미 수많은 예술작품에서 다뤄진 바 있다. 영화는 사회적 규범 속에 갇힌 인간을 관찰하고 사랑으로써 해방시키는 시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늙은 남자가 여학생을 성적 대상화하는 시선을 통해 기존 미디어의 여성혐오적인 기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에 그쳤다. 정지우 감독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에 공감하지만 '예술'이란 미명 하에 도덕이 몽개져서 안된다. 특히 우리가 여성혐오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맞닥뜨릴 때는 미디어가 이런 구조를 강화할 수도 있던 점을 늘 경계해야 한다. 성찰 없이 고여있는 넓은 생각은 썩기 마련이다.

이준성 기자 100leejs@hufs.ac.kr

1047호 학보를 읽고

코로나19가 불러온 새로운 일상

비로소 완연한 가을이 다가왔고 낮설었던 찬 공기도 익숙해졌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혼란스러웠던 일상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차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학교 역시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난 외대학보에선 코로나19가 가져온 파장에 대처하고 있는 우리학교의 현 위치를 자세하게 보여줬다.

우리학교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이번 학기에도 비대면 수업 방식을 잠정적으로 채택했다. 지난 학기 원격 강의와 관련해 여러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해당 문제의 개선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다. 외대학보는 관련 기사에서 지난 학기 일어난 문제점을 되짚어봤다. 이는 특히 당시 상황을 접하지 못했던 학생에게 교내 현안 흐름을 요약적으로 보여줬던 점에서 유의했다. 또 지난 학기와 비교해 보완된 사항과 다양한 구성원의 반응을 담았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학교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나아가 다른 학교 사례도 넣어 독자가 폭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호엔 저작권에 대해 다른 기사가 실려 우리학교 구성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재나 온라인 강의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인식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외대학보는 저작물 허용 범위를 명확히 밝히고 독자가 알기 쉽게 정리했다. 관

안효빈 (서양어 · 프랑스어 18)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47호 학보를 읽고

변화와 적응의 시대

어느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었다. 핸드폰, 지갑과 함께 외출 시 당연하게 챙기는 물건 중 하나가 마스크가 됐고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집 안에 머무르는 것에 익숙해졌다. 지난 학기엔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하던 비대면 강의도 오히려 개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돼 마냥 나쁘지만은 않다고 느낀다.

우리학교 역시 지난 학기보다 코로나19 사태에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외대학보에선 지난 학기에 비해 발전한 학교의 비대면 강의에 대한 준비와 여전히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학기엔 여러 기술적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는 지난 학기 중에도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학생자치활동은 아직 코로나19의 여파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많은 행사가 취소됐고, 활동 자체가 권고됐다. 외대학보를 통해 단과대학 학생회와 동아리의 고충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학생자치활동의 특성상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단과대학 학생회, 동아리연합회의 상황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번 외대학보에선 재학생의 저작권 의식에 대해 심층 보도했다. 전면 비대면 강의로 전환됨에 따라 많은 강의가 실시간 강의와 녹화 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많은 동

연 설문조사를 진행해 우리학교 저작권 인식의 현 위치를 재고할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더불어 학교 측 인터뷰를 통해 저작권 인식 증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비대면 수업 시행으로 인해 캠퍼스에 머무르는 학생 수는 적지만 어느 때보다 학생자치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가 커짐에 따라 각종 교내 행사는 취소됐고 대면 모임도 제한돼 회의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외대학보는 해당 기사를 통해 학생자치활동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독자에게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충과 이에 대한 관계자 입장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앞으로 학생자치활동 진행 계획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며 독자의 궁금증을 달았다.

1047호에선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주제뿐 아니라 의로계 파업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까지 다양한 사회 이슈를 담아 독자의 흥미를 더했다. 몽골 유학 수기는 해외여행이 어려운 요즘에 간접적으로나마 유학 생활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최영은 C막걸리 대표 인터뷰를 통해 정해진 틀에서 벗어난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를 배우기도 했다. 이처럼 앞으로도 다채로운 주제를 담은 외대학보가 되길 바라며 늘 좋은 기사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들과 편집장에게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다.

전종민 (공과 · 컴전 17)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영상 강의에 노출되고 있으며 강의 동영상과 자료 공유는 명백한 불법임을 확실히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번 호엔 몽골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학생의 수기 또한 담겨있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신비롭게만 느껴졌던 몽골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몽골의 탁 트인 초원과 푸른 하늘이 담긴 사진을 보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학우의 우울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길 바란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시장이 더욱 힘들어졌다. 대부분 기업이 채용 규모를 축소했고 채용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취업 준비생 역시 국경폐쇄와 채용 취소 등으로 인해 취업 계획을 변경해야 했다.

지금은 사태가 다소 진정됐지만 한동안 뜨거운 이슈였던 의사 파업 사태 역시 놓치지 않고 담았다.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정부와 의로계 입장을 객관적으로 풀어냈고 각각의 미숙했던 대처에 대해 비판하며 사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온 사회가 지쳐 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재확산 우려가 번지고 있지만 명절인 만큼 마음만이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 또 취재를 위해 바빠 뛰는 기자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농쳤던 부분을 돌아봐야할 때

국·부장 고정칼럼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다가왔다. 온 가족이 모여 떠들썩했던 예년의 추석과 달리 조용하고 조심스런 추석이 될 거라 생각한다.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변화에 따라 우리의 시간도 여느 때보다 더 빨리 흘러갔다. 그러나 변화에 가려져 놓친 부분을 살피는 시간도 분명 필요하다.

이번 1048호에 외대학보는 코로나19에 가려졌던 대학가의 문제들을 돌아봤다. 5면에선 우리학교 근처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길고양이 문제를 살펴봤다. 주거권과 길고양이 보호 사이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계속해서 제기되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문제도 살펴봤다. 본래의 목적과 다른 익명 커뮤니티의 불편한 진실을 파악했다.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사회현상도 생기고 있다. 사회면에선 최근 들어 잇따른 이상기후에 대해 다뤘다. 우리나라의 역대 최장기 장마현상과 외국의 계속되는 산불 등 이상기후의 원인과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살펴봤다. 학술면에선 밀레니얼 세대의 주식 광풍에 대해 답했다. 계속해서 증가한

부동산가격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속에서 낮아진 금리가 밀레니얼 세대를 주식시장으로 이끌었다.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만든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계속해서 적응하며 살아간다. 그 변화 속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재정비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누군가는 쉬어가는 시간이 변화를 지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은 변화를 지체하는 것이 아닌 더 나은, 더 좋은 변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번 추석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가려져 놓쳤던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시간이길 바란다.

최민선 부장 99minsun@hufs.ac.kr



코로나19와 고용환경의 변화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재택근무, 온라인 활동이 늘어났지만, 사회적 교류는 크게 줄어들었다. 경제활동은 물론, 삶의 패턴도 변했다. 감염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의미하는 '코로나 블루'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작용이다.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는 것은 개인주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등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추세이다. 반면에 이러한 변화는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와 버렸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4.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경제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 시에는 일자리가 줄면서 실업문제가 발생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전 세계 실업률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 추세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경우에도 올해 5월에는 실업률이 4.5%까지 증가했고,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10.2%까지 증가한 바 있다. 최근 약간 하락 추세인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기침체 시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가장 많이 받는 그룹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청년층이다. 경기불황이 도래할 때 고용이 감소하는 이유는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낮아지고, 기업들이 계약직 고용의 갱신을 꺼리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매출과 영업이익의 전망으로 인해 고용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정규직 근로자가 단체협상이나 내부규칙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는데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적절한 고용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기침체 시 더 큰 고용불안을 직면한다. 청년층의 경우에도 경기침체 시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경기가 불황일 때, 기업들은 취업과 동시에 재교육비용이 발생하는 청년고용을 회피하는 관행을 보이며, 숙련된 인력을 선호하거나, 기존의 인력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둔다. 특히 청년층이 임시직에 집중되어 있고,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청년실업은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해진다. 경기침체에 따른 신규 채용의 회피는 청년층의 고용기회 박탈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주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에 있어 기계화·자동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관리직·전문직 등 고숙련 노동이나 대면접촉이 필수적인 직종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어렵다. 반면에 자동화로 인해 많은 직종에 걸쳐 노동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화는 일자리를 고숙련-저숙련 그룹으로 양극화시키고, 이로 인해 기존의 임금불평등이 심화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실업문제의 장기화,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될 수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민간부문의 고용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일단 단기적으로 노동정책의 우선목표는 불황기의 고용총량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고용보호에 집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청년고용에 있어서는 단기/중장기로 구분한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청년들이 경력단절 없이 경험과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일시적이거나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청년층의 신규 채용과 장기근속 등 정규직화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아직 공공분야의 고용비중이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다. 궁극적인 고용창출은 민간분야에서 나온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증원을 통해 대처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인적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훈련과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직업교육의 확충이 필요하다.

고용환경 변화는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교육의 역할은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인지적 성장을 견인하며, 사회적 소양과 진로 탐색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시대에 새롭게 부각된 교육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의 역할에 대한 다면적 이해를 바탕으로 고용환경에 맞는 새로운 진로탐색의 여건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 강유덕(LT학부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www.시사한줄토막.com

사회: 이번 달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하기로 결정

정치: 이번 달 24일, 심상정 의원 정의당 당 대표 사임

경제: 이번 달 24일, 3대 국제 신용평가사 S&P,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5%에서 -0.9%로 소폭 상향 예상

국제: 트럼프 대통령, 에이미 코니 배럿 미(美) 연방대법관 후보 지명

IT: 서울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와이파이 사업 두고 갈등 양상

십자말풀이

			1				2		
1									4
						2			
3									
3									
							4		
								5	
								5	

- 가로**
- 1. 잇따른 ○○○, 자구가 올리는 적신후 (8면 참조)
 - 2. 20대에 드러운 코로나 우울, 우리학교 ○○○은 안녕하신가요? (3면 참조)
 - 3. 이번 해 3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젊은 투자자들이 ○○○에 대거 뛰어들었다. (9면 참조)
 - 4. 지난달 16일, ○○○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소하자고 제안했다. (8면 참조)
 - 5. 새로운 세상, ○○○에서의 첫발을 기억하며 (6면 참조)

- 세로**
- 1. 지난 달 25일, ○○○ 선출 규정 개정안이 양 캠퍼스 총학생회 공식 SNS 계정에 발표됐다 (2면 참조)
 - 2. 우리학교 학칙 개정 공포, ○○○ 조항 신설해 (1면 참조)
 - 3. 현재는 ○○○ 이외엔 국내 주식을 사고팔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9면 참조)
 - 4. 우리학교 ○○○○○, 제44차 모의유엔총회 개최해 (2면 참조)
 - 5. 학교 측은 학교 건물 출입 통제와 발열 ○○를 통해 학내 방역체계에 안전을 기하고 있다. (4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99_jina@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강유덕
편집장 허지나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끊임없이 꿈을 좇는 전우성 ‘프로덕션 계절’ 대표를 만나다

‘프로덕션 계절’ (이하 계절)은 우리학교 졸업생이 모여 차린 젊은 회사다. △제품 광고△스케치 영상△공익사업 홍보영상 등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계절은 최근 웹드라마 ‘아만자’ 제작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았다. 계절의 전우성 공동대표(이하 전 대표)는 회사 설립 전인 2010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4편의 영화를 제작한 독립영화감독이기도 하다. 전 대표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꾸준히 영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영화·광고 시장에서 중형무진으로 활약하는 전 대표(사회·언론 03)를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재학 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며 술 마시기를 즐겼어요. 또한 수업보단 사회과학대학 소속 보도사진학회 활동에 빠져 살았죠. 고등학교 때부터 사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즐겁게 학회 활동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만난 사람들과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계절을 일궈 운영하고 계신 분도 학회 선배님이예요. 군입대 때도 학회 경험을 살려 사진병으로 복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인상 깊은 경험이었죠.

Q1-2. 대학생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거창한 대외활동도 좋지만 글 쓰는 능력을 기르라고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대학 졸업이 다가오며 영화학교 입학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글을 잘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단 것을 깨달았죠. 미래에 어떤 상황이 닥칠진 모르지만, 글 쓰는 능력이 있다면 이를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Q2. 영화감독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늘 창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소설을 써서 신춘문예에 도전해보기도 하고 군대에 있을 땐 그림도 그렸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 만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겪던 과정에서 영화에 대한 열정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굳이 꼽자면 학부 재학 중 마음 맞는 친구들과 영화를 찍었던 경험을 고를 수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영화감독이 되겠다는 꿈을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Q3.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이 있나요?

오래 묵혀둔 미완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배우인 친구의 도움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답례로 그 친구가 주연인 영화를 기획했죠. 그렇게 ‘93 프라이드’란 영화를 찍게 됐어요. 친한 친구와 작업하다 보니 자유롭게 토론하고 웃으며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생 때 영화를 찍으며 느꼈던 기분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작업량과 현실에 치여 열어졌던 초심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게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Q3-1. 본인의 영화 중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무엇인가요?

첫 작품인 ‘말벌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요. 말벌 이야기는 경험에 상상력을 덧붙인 결과물입니다. 시나



▲인터뷰를 진행 중인 전 대표의 모습

리오 아이디어가 없어 고민하던 중 방에 말벌 한마리가 들어왔어요. 말벌을 보고 깜짝 놀라는 순간 영감을 받았죠. 말벌 이야기도 방에 들어온 말벌을 통해 소설을 써내려가는 작가의 고뇌에서 시작됩니다.

Q4. 영화감독이 되고, 회사를 차리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영화학교 입학을 준비하다 그만두고 동료들과 모여 작업실을 차렸습니다. 그것이 발전해 지금의 계절이 됐죠. 회사 운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광고에 대한 경험이 없어,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한 많은 공부 필요했습니다. 하고 싶은 작업과 해야 하는 업무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했어요. 다행히 현재는 잘 극복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Q5. 계절은 어떤 회사인가요?

계절은 △광고 영상△스케치 영상△영화·드라마

등을 제작하는 회사예요. 초창기엔 기틀을 잡기 위해 SNS를 활용한 홍보 영상과 스케치 영상 작업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은 ‘서사가 있는 영상’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이뤄져 있어요. 절 포함해 여러 구성원이 대형 광고사의 이직 제안을 거절하기도 했죠. 최근엔 ‘다시 우리가 하고 싶던 일을 하자’는 생각을 모아 회사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 제공사

인 카카오톡과 공동제작한 웹드라마 ‘아만자’가 그 시작이에요. 앞으로 드라마나 영화같이 서사가 있는 영상 위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회사 구성원 간에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Q5-1. 계절에서의 작업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작업을 해서 모두 기억하진 못하지만 최근에 작업한 ‘해리티지 비디오’가 기억에 남습니다.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원더 아리아(Wonder Aria)’의 의뢰를 받아 독립운동 기록을 담은 영상을 제작했어요. 해당 영상은 벽과 공중에 설치한 스크린을 통해 상영했죠. 이런 비디오 아트 작업은 흔한 경험이 아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Q6.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

니다. 이에 대해 계절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현시대에 미디어를 다루는 사람들은 OTT 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 플랫폼과 친해야 해요. 계절은 이미 SNS상의 홍보 작업을 여러 차례 경험했기에 인터넷 플랫폼과의 친화도는 확보해놓은 상태죠. 이 흐름을 살려 완성도 있는 작업물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영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화감독을 꿈꾸던 때와 현재의 영화산업은 너무 달라요. 사람들의 시선이 극장 스크린에서 인터넷으로 옮겨갔기 때문이죠. 이를 두고 혹자는 기회의 확대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생각하며 실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는 때인 것 같아요.

Q7. 영상 관련 진로를 꿈꾸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직접 촬영을 해보는 것이 실력을 기르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아무리 이론을 철저히 익혀도 실제 경험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순 없죠. 더구나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영상을 촬영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협력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죠. 영화나 영상 작업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주변 사람과 힘을 맞추고 협력하는 경험을 해보면 좋습니다.

Q8.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장편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편영화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현재로서는 이른 시일 안에 영화를 완성해 세상에 내놓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OTT(Over The Top) 서비스: 인터넷망을 통해 매개되는 TV 서비스